

“영광군민과 함께 송년의 밤을”

20일 송년음악회·21일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

영광군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7시에 송년특집공연 ‘2022 송년음악회’,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친다.

오는 20일 ‘2022 송년음악회’에서는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서훈)가 전해주는 클래식, 오페라, 가곡,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함께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가수 소향, 테너 손민호, 소프라노 하나린이 올 한해 수고한 영광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감동적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21일 ‘춘하추동 디톡스 콘서트’에서는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와 정서적 감흥을 느낄 수 있는 명불

려전의 공연으로 심금을 울리는 남상일의 깊은 목소리, 흥겨운 무대의 박구윤, 보이스 퀸 최연화, 민요의 여왕 조유주가 국악과 트롯의 신선하고도 조화로운 무대를 꾸밀 전망이다.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하고 영광군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두 공연 모두 관람료는 전석 3000원(1인 2매 한정)이며, 입장권은 오는 14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를 하거나 영광예술의전당에서 현장예매를 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화예매(영광예술의전당 061-350-5400)서비스를 이용하면 예매할 수 있다. /영광=서종민 기자

장성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본격 시작

청년공동체 3개 팀 출범 활동 돌입... 관광·꽃 치유·음식 개발

장성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청년들이 뭉쳤다. 지난 9일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장성군 청년공동체 3개 팀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김명신 장성부군수 등 군 관계자와 장성군 청년협의체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을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앞선 11월 ‘허브풍당’, ‘꽃드림’, ‘요리조리’ 3개 청년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허브풍당’은 장성의 중심(허브, hub)으로 청년들이 들어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꽃드림’은 원예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치료를 돕는다. ‘요리조리’는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청년 농업인 모임이다. 특색 있는 지역 먹거리를 개발하고, 청소년 대상 요식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청년들에게 안내했다. 이어서 장성군 3기 청년협의체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정책, 지역 내 활동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 청년협의체는 청년 문제 발굴과 의견 수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김명신 장성부군수는 “사업기간 동안 평소 구상했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화순, 왕복 4차선 ‘삼천교’ 재가설 개통

교통환경 개선·경관조명 설치 야간 불거리 제공

화순군이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삼천교의 재가설 공사를 완료하고 13일 개통식을 개최했다.

재개통된 삼천교는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길이 96m, 폭 18.5m의 교량을 재가설하고 접속도로 99m를 개선했다.

다리 폭도 기존 8m에서 18.5m로 늘리고 왕복 4차선으로 확장했다.

차도와 함께 보행로 도로를 구분해 주민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경관조명도 설치해 야간 불거리도 제공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삼천교 개통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군-영산강사업단,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맞손’

업무협약 체결... 전력·인건비 등 제반 비용 지원

함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13일 ‘가뭄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군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김신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5공구) 함평군 구역 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 공사에 요청하고, 용수 공급에 소요되는 전력비,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는 군으로부터 농업용수 공급 요청 시 적극 협조하는 한편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수관로 등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시설물 조작법 등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영농기 전까지 함평, 손불, 신광, 대동, 엄다 등 약 2,199ha의 농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담양, 풀뿌리공동체 한마당 오는 17일 해동문화예술촌

담양군이 오는 17일 해동문화예술촌 일대에서 ‘담양을 담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2022년 풀뿌리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 성과공유회를 넘어 담양 축제 기획단 ‘담우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 및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 올해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물과 활동영상을 공유하는 전시장이 마련되며, 10대부터 70대까지 계층별 무대공연과 자화상 그리기, 전래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3개의 중간지원조직인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담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가 성과공유회를 같은 날 함께 진행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이 함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올 한해 주민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담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나주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오는 2025년 11월까지

나주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됐다고 13일 밝혔다.

재인증을 통해 시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을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나주시는 2017년 최초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한 이래 2020년 연장심사를 거쳐 올해 재인증 심사까지 연

이어 통과하며 소속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힘쓰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제도 및 모성보호·육아시간을 보장해 직원들의 육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별도 연가 사용 없이 하루 2시간 씩 모성보호·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 슈퍼맘&대디 워라벨 힐링교실(직장교육)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나주=조성준 기자

장흥 ‘생물의약산업 통합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생물산업 전문분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장흥군이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통합협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장흥군, 한국한의학진흥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참여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생물의약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제안 및 사업발굴 등 상호협력 체계 구축, 기술자문 및 정보 공유,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협약기관들은 그간 기관들이 각자 연구해왔던 연구 성과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시설, 그리고 박사급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해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특색 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바로 내년 시범사업을 발굴 실시하는 등 3개 연구기관과 1개 병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됐다.

김성 군수는 “지역 연구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개발 효율을 높이고, 그 성과가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농·수·축·임산업의 6차 산업화를 앞당겨 농가 소득창출을 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